

# 구례 귀농·귀촌인 31% 다시 떠났다

최근 5년간 1683가구 유입 불구 3~4년차에 434가구 도시로 역유턴 소득 감소·의료문화시설 부족 원인 안정적 정착 위한 새 정책 개발 필요

구례군에 귀농·귀촌한 가구 중 30% 이상이 다시 떠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와 새로운 시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5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입된 귀농·귀촌인은 1683가구에 2309명이다. 구례군 전체인구 2만5851명의 9%에 달한다. 이들 1683가구는 서울·광주·경기·부산·인천 순

으로 유입됐으며, 전남지역에서는 137가구가 구례로 이주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가구당 1.37명으로 나홀로 귀촌한 가구가 상당수에 이르며, 귀농인은 16%인 376명에 그쳐 영농보다는 휴양과 노후, 여가 생활을 목적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중 31%인 434가구가 다시 도시로 돌아갔으며, 이주 3~4년차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시로 다시 돌아간 첫 번째 이유는 농촌지역에서의 소득 감소를 꼽았다. 영농 기반과 주거시설 미확보, 의료·문화시설 부족 등도 구례를 떠난 이유다. 구례군은 그동안 264명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을 포함한 5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집 수

리, 농업시설 확보 등을 도왔다. 구례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입인구 통계를 보면 귀농보다는 귀촌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웃 주민 초청 행사, 주택 수리 지원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 귀농·귀촌인 가구는 3만287가구로 경북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다. 이 중 구례군은 1.5%에 그쳐 인구 감소세를 막을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정책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해남군은 어울림마을 조성, 마을 단위 융화 교육, 지역상품권 지급 등의 시책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곡성군 침실습지에 14만5000㎡ 수변공원 조성

160억원 투입 2022년 완공  
섬진강 생태관광 거점으로

곡성군이 침실습지를 섬진강 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 5일 곡성군에 따르면 섬진강 침실습지 인근에 14만5000㎡ 규모의 수변공원을 들어선다. 국비와 군비 16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곡성군이 160억원을 들여 섬진강 침실습지 인근에 14만5000㎡ 규모의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곡성군 제공)

침실습지는 곡성군 고달면과 오곡면 일대 섬진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하천의 원형이 가장 잘 보전된 하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을 만큼 '생태계 보고'로 불린다.

갈대가 군락을 이룬 습지에는 멸종위기 1급 수달과 흰꼬리수리를 비롯해 삵, 남생이, 새매, 큰말뚝가리 등 665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빼어난 풍경과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2016년 11월에는 강 중류 하도습지로는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22번째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침실습지 수변공원은 '연하일취'라는 주제로 조성된다. 안개 낀 강과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이다.

최종 목표는 침실습지를 생명이 돌아오는 천혜의 생태관광 중심지로 발돋움시키는 것이다. 인위적 개발을 최소화해 습지 생태의 건강성과 환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습지보호구역 완충공간 훼손지를 복원하고, 생태교육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설계와 부지 매입, 배수펌프 조성 등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우선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곳을 비우고 수생태계 중심의 소생물 서식처를 조성하게 된다. 여기에 숲과 들, 습지, 화원 등 우리나라의 전통 경관을 극대화한 산책로를 만들 예정이다. 식생을 고려해 계절별로 다양한 식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수련지와 장포원도 만들어진다.

또 침실습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화 체험시설이 조성된다. 방문자센터와 수련지를 잇는 이동수단으로 추억의 섬진강 줄베를 계획하고 있다. 모심기, 벼 베기 등 논을 이용한 놀이프로그램과 마천복장군의 도깨비살을 차용한 그물놀이, 낚시 등 전통 낚시 체험도 준비하고 있다.

자연과 자연, 자연과 사람을 잇는 시설들도 생겨난다. 휴식공간과 전시 체험관 등 다양하게 활용될 방문자 센터가 대표적이다. 센터 옥상은 경사를 두어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도록 만든다.

침실습지와 섬진강을 잇는 '생명의 나무' 전망대도 조성되고, 돌레길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물론 인근의 도깨비마을, 심청한옥마을, 섬진강가차마을과 같은 관광지와의 연계해 관광거점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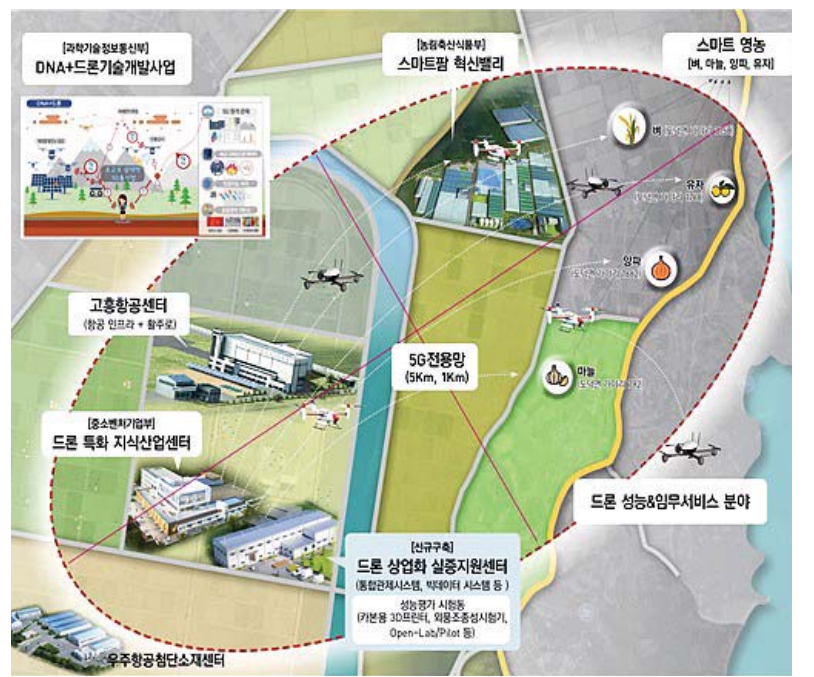
곡성군 관계자는 "호남고속도로, KTX 전라선 등 높은 교통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해 침실습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고의 생태관광공간으로 새롭게 꾸며 곡성발전의 획기적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고흥군 5G기반 드론 활용 영농사업 선정

고흥군은 산업통상자원부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기술원, 순천대학교,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가천대학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고흥항공센터 일원에 오는 2023년까지 국비 8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64억원을 투입해 5G통신 전용망과 드론상용화 실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 빅데이터 시스템, 성능평가장비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고흥군 5G기반 드론 스마트 영농 실증사업 계획도.

5G 통신을 기반으로 작목별 재배·관리 매뉴얼과 표준안을 마련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사업과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비·마늘·양파·유자 등 영농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이 사업은 총 4년 동안 진행되며, 1차년도에 드론

상용화 실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4차년도까지 지식산업센터 내에 통합관제시스템 및 외풍조정성 시험기 등 총 13종 20식의 설비 및 장비를 구축한다.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인 기업 지원 및 실증사업을 통해 드론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순천시 전국 첫 토지 불법행위감찰팀 신설...신고포상금 조례 추진

순천시가 산지와 토지의 불법 개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사실에 불법 행위감찰팀을 신설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신설된 불법 행위감찰팀은 농지와 임야 등 지목별 관리부서의 불법 개발행위 단속 업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한 직무감찰·조사·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7월1일 이후 산림(사유지·공유지) 훼손, 불법 전용 등 행위를 신고해 사법적 처벌이 이뤄질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는 앞서 지난해 30일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시장 철학으로 추진 중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는 하늘·땅·물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 사람·자연·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불법 행위감찰팀의 신설은 이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2018년 7월 25일 유네스코에서 도시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어 민선 7기 후반기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위상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생태정원문화 도시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세일콜

### "현장 대응 중심 소방행정으로 골든타임 확보"

하수철 순천소방서장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완벽한 현장대응 중심 소방행정을 펼쳐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하수철(59) 순천소방서장은 "순천시는 세계 5대 습지인 순천만 갈대 습지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등 세계적인 생태관광문화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유사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서장은 "대형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평소에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화재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하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1988년 순천소방서에서 첫 소방사로 공직에 입문해 여수소방서 구조대장, 해남소방서 방호담당, 화순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소방본부 예산장비팀장 및 소방행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